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태권도 품새영역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차예은 선수를 만났다. 여러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일명 차미네이터 차예은 선수를 만나 세계 정상으로 향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과과정 개편 및 학생 요구사항에 관한 소통이 이뤄졌다.

대학주보

총장 선임 행정지원단 신설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총장 선임 과정에 수반되는 행정을 지원하는 제17대 총장 선임 행정지원단(행정지원단)이 만들어졌다. 단장은 서울캠퍼스(서울캠) 권오병 학무부총장이 맡았으며 김성완 의무부총장과 최희섭 행·재정부총장도 발령을 받았다. 행정지원단 사무국장은 총무관리처 손용기 처장이 맡았다.

행정지원단 사무국은 ▲서울캠 총무관리처 손용기 처장 ▲커뮤니케이션센터 박세환 센터장 겸 팀장 ▲기획조정처 감사팀 박준 팀장 ▲학무·부총장실 지승렬 ▲연구처 연구진흥팀 정혜정 ▲총무관리처 총무팀 김기표 등 총 6명 구성됐다.

행정지원단은 총장 직속 임시기구로 서울캠과 국제캠퍼스 공통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행정지원단 산하에 있는 사무국은 ▲공보(홈페이지 운영) ▲법무(법률 자문 및 준법 감사체계 운영) ▲교무/연구(후보자 검증) ▲전산(후보 추천을 위한 공식 계정 및 시스템 운영) ▲일반행정(행정지원단 운영 지원) ▲기획조정처(행정지원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행정지원단 신설은 법인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법인은 지난달 대학에 공문을 보내 총장선임관련 구성원 단체 의견 수렴과 대학 내 전담조직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기획조정처 김동준 팀장은 “제17대 총장 선임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제16대 총장 선임 과정을 살펴보면 행정지원단 구성과 업무 개시까지 시간이 걸려 선임 방식이 확정되기 전 미리 행정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지원단은 총장 선임 방식 관련 구성원 간담회를 열어 첫 활동을 개시했다.



유네스코 DCMÉT 심포지엄 개최

우리학교가 공동주최한 '2023 유네스코 DCMÉT 심포지엄'이 '평화, 문화, 그리고 사회 정의'를 주제로 네오르네상스관에서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개최됐다. 행사 마지막 날 '커먼즈 앙가주망과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토론자들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이사회, 제17대 총장 선임제 확정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법인 이사회가 제17대 총장 선임제를 확정했다. 제16대 총장 선임과정과 비교했을 때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사회가 참여하고, 구성원의 직접 투표는 배제하는 모델이다.

이사회가 확정된 총장 선임제는 ▲초빙 공모 ▲후보자 추천 ▲숙의·자문 ▲후보 선정 ▲심의·의결 ▲임용 단계를 가진다. 이사회는 ‘구성원과 소통하자’, ‘법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책무를 다하자’, ‘대학다운 제도를 만들자’는 원칙 아래 다음과 같은 총장 선임 절차를 마련했다.

초빙 단계에서는 우리학교 구성원 및 관계자가 자유롭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후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총추위)에서 각 5인으로 구성된 이사·교수·학생·직원·동문은 주체별로 총장 후보 5인 이내를 추천해 최대 25인의 예비 후

보를 추천한다. 숙의·자문 단계에서는 이사 4인, 이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1인, 구성원이 추천하는 전문가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총장 후보 숙의위원회’(총숙위)가 예비후보 중 5인을 압축한다. 구성원 참여는 숙의·자문 단계까지다.

이후 이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총장 후보 선정·심의위원회’가 평판 조회, 심층 면접, 숙의 과정을 거쳐 자격을 검증해 예비후보 5인 중 최종 1인을 선정한다. 최종 후보 1인이 추천되면 이사회를 개최해 후보의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임용 여부를 의결한다.

이사회는 총장 계약 체결의 주요 항목을 이사회가 위임한 총장의 역할과 책임, 중간 평가를 포함한 경영 평가, 처우 등으로 둔다.

한편, 이사회 개최 전 구성원 대표단은 총장 선임제 관련 간담회 논의 결과를 이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지난 23일, 구성원 대표단은 지난 16대와 같은 총장 직무대행

체제 반대, 이번 학기 종료 전에 총장 선임을 완료할 것, 그리고 구성원이 제안하는 총장 선임 방식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구성원 대표는 교수의회 김도균 의장,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김경수 위원장,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 김종민 회계감사(박경규 지부장 위임),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 이재백 회장, 서울캠 대학원 총학 조응현 비상대책위원장, 국제캠퍼스 대학원 총학 정건하 회장, 총동문회 전영덕 회장이었다. 그리고 제17대 총장 선임 행정지원단 관계자인 부총장단과 손용기 사무국장, 정종필 기획조정처장도 참여했다.

구성원 대표단은 ▲공모·접수 ▲추천 ▲심의 ▲선임을 골자로 하는 총장 선임 방식을 건의했다. 추천 단계에서는 이사회 및 구성원 단체(교수·학생·직원·동문)로 구성된 총추위가 후보자를 추천한다. 심의는 총장후보심의위원회(총심

위)가 최종 후보자를 복수 추천한다. 총심위원은 이사회와 구성원 단체 추천으로 구성되며, 이 때 양쪽에서 추천된 인원은 서로 동물 또는 동물에 가깝도록 논의됐다.

서울캠 이재백(관광학 2020) 총학생회장은 “3가지 건의안이 구성원 대표 간담회에서 주요하게 여긴 부분이었다”며 “기존 이사회 안과 달리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고, 총장 직무대행 체제를 겪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구성원 간의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총장 선임 행정지원단 권오병 단장은 구성원 대표단의 논의 결과에 대해 “이사회에서 먼저 제시한 안에 비해 훨씬 구성원들의 참여를 많이 보장해달라는 것을 재요청한 것”이라며 “추천 단계에서 구성원 참여가 있다는 것과 과반수의 예비 후보자를 구성원 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 이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전했다.